2016년 울산 교육대표단
일본 니이가타시 방문결과 보고서

2016. 10.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2016년 울산 교육대표단 일본 니이가타시 방문결과 보고서

1. 방문목적

□ 국제 교류를 통한 외국 문화 이해력 향상

□ 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미래지향적인 우호 친선관계 형성

□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일본국 니이가타시와의 교육 교류 협정서 (2006.12.26.)에 의거 격년제 학생 상호방문

2.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6. 10. 13(목) ~ 10. 17(월), (4박 5일)

□ 방문장소 : 일본 니이가타시

□ 참가인원 : 학생10명, 인솔자 3명

구분	연번	성명	학교명 (근무처)	학년 (직책)	성별	비고
학생	1		격동초등학교	5	남	
	2		서부초등학교	6	여	
	3		옥현중학교	3	여	
	4		화암중학교	2	여	
	5		학성중학교	2	남	
	6		대송중학교	3	남	
	7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	남	
	8		우신고등학교	2	남	
	9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2	여	
	10		호계고등학교	2	여	
인솔단	1		울산신정고등학교	단장	남	
	2		옥동중학교	인솔	여	
	3		울산광역시교육청	업무	여	

3. 방문일정별 활동내용

일자	시정	일 정	활동 내용
10.13 (목) 1일차	09:30 13:00 14:25 18:25 19:25 20:00	울산 출발[김해공항리무진] 김해공항 출발[KE753편] 나고야 공항 도착 나고야 공항 출발[NH1813편] 니가타 공항 도착 호텔 도착 (호텔 선루트 니가타)	▸09:30 울산역 집결, 연수 안내 및 안전 교육 ▸학교방문발표 지도 및 점검 ▸일본 담당자 대면 ▸저녁식사 및 일본 일정 안내
10.14 (금) 2일차	09:00 09:45 10:45 12:00 13:00 14:00 17:00 18:00	니가타 시장·교육장 예방 <엔키칸>에서 다도체험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 견학 점심 <니츠 다이니 중학교> 방문 「국제 청소년포럼」 참석 호텔 도착 니가타시 교육위원회 주최 환영회	▸시청 방문: 시장·교육장 면담, 환담, 선물교환 및 기념촬영 ▸일본식 정원 및 유기동물 센터 견학 ▸일본학교 소개 및 환영회 / 울산학생 자기소개, 울산소개, 장기자랑 발표 등 ▸토론 및 교류: 인근 초.중.고 대표학생 참석 ▸교육장 참석, 학생 자기소개 및 환담
10.15 (토) 3일차	09:00 12:00 13:00 17:00 19:00	<마린피아 수족관> 견학 점심 쇼핑 홈스테이 가족과의 대면식 및 이동 인솔자 석식	▸수족관구경 및 돌고래쇼 관람 ▸이온미나미몰 ▸호텔에서 홈스테이 가족 대면 및 인도
10.16 (일) 4일차	17:00 18:00	학생 – 홈스테이 인솔 - 시내 견학, 중식 학생 – 호텔로 이동 송별회	▸학생: 홈스테이 가족과 일본문화체험 ▸인솔: 사이토가 대저택 방문 ▸홈스테이가족, 니가타시 교육위원회 참여
10.17 (월) 5일차	07:20 09:30 11:45 15:00 17:18	호텔 출발 니가타공항 출국(KE764편) 인천공항 도착 서울역 출발[KTX] 울산역 도착	▸개인 짐 확인 및 안전 교육 ▸연수 종료, 학생 귀가

4. 주요 기관 방문

□ 니이가타 시청 및 교육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0.14.(금) 09:00~09:40, 니이가타시청 회의실

▶ 참석자 : 울산대표단 13명,
니이가타 시장(시노다 아키라), 국제과 과장(스즈키 히로유키),
니이가타 교육장(마에다 히데코), 교육차장(타카시마 토오루)
학교지원과과장(오오이 타카시),
일본측 업무담당자(야마다, 모로하시, 홍채리) 등

▶ 진행순서

① 시장 인사말 / 교육장 인사말
② 울산 인솔단장 인사말(5분)
③ 울산 방문단 자기소개
④ 환담
⑤ 선물 교환, 사진 촬영

□ 니이가타 시립 나츠 다이니 중학교

<제 1부> 환영교류회

▶ 일시 및 장소 : 10.14.(금) 13:00~14:00, 체육관

▶ 참가자 : 울산대표단 13명, 니츠다이니 중학교 재학생 전원

▶ 진행순서

① 니츠 다이니 중학교 교감 인사말/ 학생대표 환영인사말(5분)
② 울산 인솔단장 인사말(5분)
③ 울산 학생 자기소개(10분) : 일본어로 개인별 소개
④ 니츠 다이니 중학교 소개(ppt, 8분)
⑤ 니츠 다이니 중학교의 환영 오케스트라 연주(15분)
⑥ 울산 학생 발표(16분)
- 울산 소개(8분, 일본어 PPT) : 신승찬,김상윤
- K-POP댄스(8분) : 참가학생 전원
⑦ 기념품 및 꽃다발 교환

<제 2부> 국제청소년포럼

▶ 일시 및 장소 : 10.14.(금) 14:00~16:00, 회의실

▶ 참가자

- 울산 학생 10명
- 무스비 초등학교 4명, 오키카와 초등학교 4명
- 반다이 고등학교 2명, 니츠다이니 중학교 대표학생 8명
- 메이쿄 고등학교 2명, 코시 중등교육학교 2명

▶ 포럼 사회진행은 니츠다이니 중학교 학생이 담당, 교사가 지원

▶ 주제: 『다른 문화와 습관을 가진 세계의 사람들과 보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들이 소중히 해야할 것』

▶ 진행순서

① 개회인사/포럼 흐름 설명(5분)

② 주제에 관한 제안발표(12분)

- 울산 학생 발표 (6분) : 김소연,권나연
- 니츠 다이니중학교 (6분)

③ 테마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한 의견교환(30분)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견교환(영어,일어 통역사 배치)

④ 각 그룹의 대표가 의견 교류 결과 보고(5분)

⑤ 폐회인사

5.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일본 학교는 울산 학생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우리 방문단도 일본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과 울산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교류행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음.

□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현지 가정생활과 일본 학생들과의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외국 방문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외국어 의사소통 향상 및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회를 제공함.

6. 방문 사진

울산역 출발(10.13)	니가타 시청 방문(10.14)
니츠 다이니중학교 장기자랑(10.14)	니츠다이니중학교: 환영 꽃다발 증정(10.14)
카메다니시중학교: 국제청소년포럼(10.14)	니이가타시교육위원회 주최 환영회(10.14)
엔키칸에서 다도체험(10.14)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 체험활동(10.14)

마린피아 수족관 견학(10.15)	일본가정 홈스테이(10.15-16)
홈스테이가족과 함께하는 송별회(10.16)	홈스테이 가족과 단체사진(10.16)

7. 참가자 보고서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보고서

옥동중학교 교사 문영신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일본 니가타시 교육위원회는 2006년 12월 26일 교육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는 그 교류 협정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우리 울산교육청은 초등학생 2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김영오 신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인솔단장님으로 하는 학생대표단을 구성하였다. 나는 일본어 통역 인솔교사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아 이 대표단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9월 9일 첫 사전모임을 가지고 각자 일본어로 자기소개 연습과 울산시 소개 자료 제작, 학생 장기자랑, 국제청소년 포럼에서의 제안 설명에 대한 준비를 각자 역할을 정해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중간 점검을 통해 독려하고 꾸준히 연습하였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등의 바쁜 학교일정 속에서 부족한 연습량을 잔뜩 걱정하면서 예정된 출국 날짜가 되었다.

1. 첫째날(10월13일 목요일)

아침 9시경 태화강 둔치에서 김영오 인솔단장님, 나, 장수미 국제교류업무 담당자, 학생 10명은 발대식을 마치고 김해 공항 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니가타시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김해에서 13시 출발하는 나고야행 비행기를 타고 14시 30분경 나고야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심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니가타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환승안내를 따라 탑승 수속을 해야 했다. 이 때 부터는 온통 일본어뿐이고 안내방송 또한 일본어 안내밖에 없어서, 나는 우리 대표단 일행의 길잡이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발 시간까지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 우리는 공항 내에서 일본식 우동을 점심으로 먹고 학생들은 장기자랑과 자기소개 연습을 하면서 탑승 안내를 기다렸다. 센다이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가 연착된다는 방송 때문에 혹시나 우리 비행기도 지연이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우리 비행기는 예정대로 19:25분에 나고야를 출발하여 18:30분에 니가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나는 일본 측 담당자가 전달하는 다음날 일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호텔 내 에티켓과 집합 시간 준수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학생들도 몇 명 있었는데 기나긴 일정을 잘 따라준 학생들이 기특하고 남은 일정동안 별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니가타에서 첫 잠을 청했다.

2. 둘째날(10월 14일 금요일)

제일 중요한 날이 밝았다. 이 날의 일정은 시장님과 교육장님을 접견하고 다도체험, 꽃과 먹거리의 교육센터 체험, 중학교 방문 등 빡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한국과 울산을 알리는 중요하고도 격식 있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8시 1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니가타 시청 시장님 접견 대기실에서 실무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잠시 대기하였다가 시장님 접견실로 이동하였다. 둥근 원탁형 테이블 중앙

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기가 놓여 있었고, 중앙으로부터 시장님과 교육장님, 부교육장님, 교육위원회 학교지원과 과장님, 시청 국제교류지원과 과장님 등이 참석하셨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님을 중심으로 나와 담당자를 양쪽으로 학생들이 나란히 둘러앉았다.

니가타시 시노다 아키라 시장님의 환영사와 마에다 히데코 교육장님의 환영사가 있고, 이어서 우리 대표단 단장님의 답례 인사말씀이 있었다. 나는 사전에 일본어로 번역한 원고를 읽으면서 통역을 했다. 너무 격식 있는 자리이다 보니 많이 긴장되었다. 시장님께서 학생 한명 한명의 자기소개를 원하셔서 우리 학생들은 간단히 자기이름과 나이를 말하는 정도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발표를 위해 암기한 소개인사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이들도 당황하고 긴장하는 눈치였다. 이 대표단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일본어 인사말이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두 마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더욱 자신감 있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시장님은 울산의 태풍 피해 상황과, 학교피해 상황에 대해 물어 보셨다. 단장님께서는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며, 태화강 범람으로 저지대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태풍 이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고 지진 대비책에 대해 많은 울산 시민들이 걱정하고 재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하셨다.

맛있는 일본 차를 마시면서 환담 후 양국의 선물 교환이 있었다. 니가타 시장님은 우리 학생들과 교육청에 기념품을 주셨으며, 우리 대표단은 교육감께서 준비해 주신 전통 조각보 액자를 니가타 시청에 전달하고, 교육장님과 담당자님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렸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념촬영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시(兩市)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교류 협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장님과 교육장님 접견을 마무리 하였다. 시장님의 따뜻한 환대와 시청 직원들의 배웅인사를 보고 우리 학생들은 무척 긴장하고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시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다도체험을 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엔키관이라는 곳으로 갔다.

일본의 다도는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문화중의 하나로 차를 끓이고 마시는 예절을 배우고 차 맛을 음미하는 행위로 일본의 전통가옥인 와시츠(和室)에서 행해지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이다. 아름다운 다타미방에서 우리 대표단은 다도에 대한 예절을 배우고 직접 차를 만들어 내는 체험도 해보고 자신이 만든 차를 예법에 따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처음 마셔본 마차의 쓴맛에 신기해하였다.

이곳을 나와 곧이어 우리 대표단은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식물과 꽃잎으로 직접 엽서 만들기를 체험하고 동물체험 센터를 방문하여 알파카나 진귀한 토끼 등을 보고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엿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우리 대표단은 니츠다이니 중학교로 향했다.
중학교에 도착하니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열렬한 박수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곳의 모든 환영식은 학생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나 정숙한 태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먼저 그 곳 학교의 교감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고 우리대표단 단장님의 답례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니츠다이니 중학교 취주악부의 환영 연주가 있고, 우리 학생 대표단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강당의 단상에 올라가서 열 명이 각자 자기소개를 일본어로 하였는데 긴장한 탓인지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에 지도교사로서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의 울산소개가 있었다. ppt영상으로 울산의 주요사항들을 보여주고 일본어로 울산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곧이어 우리 학생들의 장기자랑 소개시간으로 일본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K-POP 노래에 맞춰 댄스공연을 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이 노래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울산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소개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니츠다이니 중학교 교감선생님과 우리 단장님의 선물 교환이 있은 후 우리 대표단 환영식은 종료되었다.
곧이어 우리 학생들은 국제 청소년 포럼에 참가하였다. 니가타 교육위원회 측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각 모둠을 구성하고 우리 대표단을 2명씩 각 모둠에 배치하여 통역교사들을 배석시키고 "다른 문화와 습관을 가진 세계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들이 소중히 해야 할 것" 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나는 일본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과 우리 측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구성된 모둠에 들어가 통역을 하면서 학생들의 토론을 도왔다. 일본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도 깊을 뿐 아니라 발표하는 태도나 조리 있는 언변을 보고 평소 토론 수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주제에 맞추어 학생들은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의 관심사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간 작은 기념품들을 받고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이런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외교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막 낯가림을 끝내고 말문을 트기 시작한 학생대표단은 아쉬웠지만, 준비된 시간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은 호텔에서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이 배석한 환영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교육장님과 과장님의 환영사와 우리 측 단장님의 답사가 있었으며, 양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건배하고 양국의 교육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환담을 나누었다. 일본 측에서는 우리 대표단을 청소년 외교 사절단으로 칭해주었다. 기나긴 일정으로 모두 피곤하고 긴장도 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외교사절단으로 이곳에 참가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정을 소화해 주기를 학생들에게 상기시켰다. 학생들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고귀한 경험이었다고 들떠 있었다.

3.셋째날(10월15일 토요일)

학생들은 오후에 홈스테이 가정으로 가서 1박을 하는 일정으로 모두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홈스테이 가정에 가져갈 짐과 호텔에 맡길 짐으로 분리하여 집합하도록 하였다. 아침 9시 반경에 호텔을 나서 우리는 마린피아 수족관을 견학했다. 돌고래 쇼가 인상적이었고,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중식 후에는 이온몰이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진 후 홈스테이 가족 대면식을 위해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 학생들은 각자 한 가정 한 가정 자신들을 데리러 나온 가족들을 만나, 무척 들뜨고 기대에 차 있었다. 나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의 가족에게는 학생을 소개하면서 영어 등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단장님은 홈스테이 호스트패밀리 가족분 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고, 우리 인솔단은 모든 학생들을 배웅하였다. 이후 일본 측 담당자와 현지통역과 우리 인솔단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각자 휴식시간을 가졌다.

4.넷째날(10월 16일 일요일)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갔기 때문에 오전일정은 인솔단만 진행되었다. 10시경 우리 인솔단은 사이토우 대저택을 관람하였는데 나는 수업 중 가르쳐온 일본의 전통 가옥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식 후 시내중심가를 둘러본 뒤 4시경 호텔로 서둘러 돌아왔다. 5시경 호스트 패밀리들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고 학생들의 방을 다시 배정해 준 뒤, 6시부터 송별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우리 일행의 마지막 일정인 송별만찬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부교육장님, 학교지원과 과장님, 10명의 호스트 가족들과 우리 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하루 동안 정들었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밝은 표정으로 일본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서로 친해진 모습을 보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통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교육장님의 송별사와 우리 단장님의 답사 후에 울산 교육과 니가타 교육의 발전과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대표단은 한 번 더 댄스 공연을 하고, 일본 가족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일본 학생들이 두 명이나 댄스를 선보여 주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학생들은 눈물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우리 인솔단도 교육관계자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 있을 일본 대표단의 대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아쉬운 송별만찬이 끝나고 나는 학생들에게 내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각자 니가타시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았다.

5.다섯째날(10월 17일 월요일)

우리는 이른 아침식사를 끝내고 7시 1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나고야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담당자 야마다씨와 현지통역 홍채리씨와 감사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탑승수속을 했다. 일본 공항은 보안검색이 너무나도 엄격하여 우리 학생들이 산 젤리나 작은 화장품등이 다 재검사를 받아야 해서 탑승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었다. 전날 보안검색대 금지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는데도 나 역시 젤리까지 금지물품인줄은 몰랐던 관계로 다소 당황하였다. 우리는 9시45분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11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서울도시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후 점심을 먹고 3시 55분 KTX를 타고 울산으로 왔다. 울산에 6시 5분에 도착하여 단장님의 해단 인사를 끝으로 우리 대표단은 이번 방문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6.느낀 점과 제언

우선 이번 방문에 일본어 통역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격려해 주신 본교 교장선생님과 선발을 결정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교육경력 20년차로 일본어 교육 및 울산 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런 양국의 교류에 직접 참가하여, 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울산 교육의 발전에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인 동시에 크나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동시통역이란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힘든 면도 있고 일본인과의 대화 기회가 적었던 나에게는 부족한 면도 많았던 것 같지만, 이번의 큰 경험으로 한층 더 많은 공부가 되었다.

또한 학생대표단 구성에 있어 일본 대표단은 반드시 면접을 보고 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표단은 교과 성적과 수상 내역 등을 보고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해서인지 실제 상황에서의 대인 친화력이나 자기 관리, 여행지에서의 에티켓, 매너 등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학생들이 보였다. 지원 동기 또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교류에 미미하나마 외교사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권유 등으로 지원한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의 의의가 반감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향후 있을 방문 사업에는 좀 더 긴 준비 시간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대표단 선발에 있어서도 1차 서류전형에서 2배수 선발 후에 2차 면접을 통한 인성과 태도, 자신감, 지원 동기 등을 보고 선발한다면 더욱더 울산과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울산과 니가타시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이해도가 높아지고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 질 것을 기원한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격동초등학교 5학년 송준오

(1일째)처음으로 일본 니가타를 가는 날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솔 담당 선생님들과 초, 중, 고 형, 누나들과 울산을 대표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너무 뜻 깊고, 새로운 경험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비행기 환승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니가타에 도착하니 시에서 보낸 사람들이 저희를 웃는 얼굴로 반겨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반가운 손님이 온다면 꼭 좋은 얼굴로 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정에 잘 맞춰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니가타에 잘 도착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일째)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니가타시 시장님과 교육장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엔키칸에서 다도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차와 과자를 주셨는데, 차는 녹차를 주셨습니다. 일본 엔키칸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에서는 많은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동물도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하던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버스를 타고 니츠 다이니 중학교에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긴장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포럼을 하였는데 일본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가까이 있어도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째)니가타시 수족관에 갔습니다. 신기한 물고기들과 산호초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바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린피아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바로 돌고래 쇼입니다. 돌고래들은 무려 10년이 넘게 훈련된 돌고래들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돌고래 쇼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 홈스테이 가족들과 만났는데 제 홈스테이 가족은 정말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 누나와 초등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누나 이름은 미나미입니다. 온 가족이 따뜻하게 맞이 해주셨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솔담당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게도 저는 위급한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너무 놀라고 힘들었는데 홈스테이 가족들께서도 아픈 저를 걱정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4일째) 오늘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준비해준 일정들은 모두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과 로봇을 좋아하는 저에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과학박물관 관람을 시켜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누나와 동생과 함께 그곳에서 별에 대한 영화를 보고 로봇들도 보았습니다. 그 로봇들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며칠 전 TV에서 봤었던 귀여운 물개로봇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심리치료에 사용 되었던 물개 로봇이라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나서 밥을 먹었는데, 저를 위해서 불고기 집을 갔습니다. 그 다음 연 박물관을 갔습니다. 연 만드는 과정 또한 재미있었고, 인공바람으로 직접 만든 연을 어렵지 않게 날려 볼 수 있어서 신났습니다. 홈스테이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와서 송별회를 했습니다.

(5일째)오늘은 일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가 아닌 혼자 떨어져서 떠나는 첫 여행이라 처음엔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4박 5일간의 일본 니가타에서의 생활과 홈스테이는 저에게 잊지 못할 새로운 경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갑자기 아파서 많이 힘들었지만 얻은 것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교류학생 단원들과 많이 친해져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형, 누나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서부초등학교 6학년 강수현

(1일째)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태화강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언니, 오빠들이 먼저 와 있었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떨렸습니다. 김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을 때 울산을 대표해서 일본에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문으로 일본이 보일 때 마음이 들떴습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거리를 구경했는데 여러 가지 상점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선루트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같이 온 언니들과 일본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일본거리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는데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 우리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본 과자가 어떤 맛일지 궁금하여 음료수와 과자를 샀습니다. 그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푸딩이었는데 일본 푸딩은 우리나라와 달리 새하얀 푸딩 위에 시럽이 뿌려져 있었는데 이런 푸딩은 한국에서 잘 팔지 않아 맛이 기대되었는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 날 밤에는 언니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설레는 맘으로 다음날 니츠 다이니 중학교에 가는 것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일째)아침 일찍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조금 피곤했지만 오늘 시장님을 만나고 니츠 다이니 중학교에 가서 언니 오빠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고 힘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니가타시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 전에 무척이나 떨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시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가타시 시장님과의 면담 후 마지막에 선물로 필통과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소중히 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우리는 다도체험을 했습니다. 일본 차를 만들어 보고 맛도 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썼지만 달달한 과자를 먹고 먹으니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 전통 다도 예절을 배우니 새로운 경험이라 참 좋았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기모노를 입으신 것이 예쁘셔서 나도 기모노를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다도체험이 끝난 후 기대하던 니츠 다이니 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니츠다이니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를 보니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들어가는 곳에서 언니, 오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강당으로 안내해 주어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을 잡고 연습했던 대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소개가 끝나자 언니, 오빠들이 큰 환호와 박수가 있어 뿌듯하였습니다. 함께 간 오빠가 PPT로 울산을 소개하였고, 일본에서도 학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에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장기자랑으로 ‘CHEER UP'을 추었는데 니츠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좋아해 주고 호응해 주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학생들과 조를 짜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는 학교생활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간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

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어 고마워서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학생들과 헤어지고 나서 호텔로 오니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일째)오늘도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한 마린피아 수족관은 니가타시에서 가장 큰 수족관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산호와 물고기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수족관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에는 처음 보는 물고기와 책에서 보았던 물고기, 또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물고기 등 다양한 물고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물고기는 '니모 흰동가리'였습니다. 니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 물고기로 영화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직접 눈으로 보니 너무도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중 터널을 지나가면서 본 가오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꼬리도 정말 길어서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들을 다 보고 돌고래 쇼를 보았는데 4마리의 돌고래가 공중에서 돌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사육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중 동물들도 보았는데 펭귄이 가장 귀여웠습니다. 펭귄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총총 걷는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수족관을 보고 난 후 잠깐 이온몰에 들렀습니다. 그 곳에서 점심을 먹은 후 언니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에는 사진 찍는 기계가 정말 많아서 신기했는데 한국에도 이런 기계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언니들과 인형 뽑기도 해보고 한국에 가져갈 간식과 선물들을 샀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나의 홈스테이 가족의 이름은 '히오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하였지만 히오리가 나를 보고 반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히오리 아빠와 같이 하오리네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히오리네 방이 있고 1층에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히오리와 나는 히오리네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히오리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녁밥은 일본 스시를 먹었는데 스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히오리와 이야기하니 정말 재미있었고 오랜 친구 같이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오리와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히오리와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4일째)홈스테이 식구들과 아침밥을 먹으러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계란빵, 머핀, 쿠키들과 음료수를 먹었는데 일본 빵도 한국 빵만큼 맛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원에 잠시 들러 구경을 했습니다. 사원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둥들은 사원을 지을 때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원에 10엔을 넣으면서 나만의 소원도 빌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오리네 집에서는 오늘 사원을 하나 더 들리고 시내로 나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쇼핑몰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시내를 구경하고 싶었고, 쇼핑도 하고 싶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히오리네 가족들도 자전거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오리와 사원을 하나 더 둘러본 후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전망을 볼 수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우리는 21층까지 올라가서 전망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니가타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중 히오리네 아빠가 우리가 묶고 있는 호텔도 찾아주셨습니다. 니가타 시를 한눈에 보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쇼핑몰이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에서 일본 빙수도 먹어보고 녹차 쥬스, 과자 등 여러 가지

일본 전통과자를 먹어보았습니다. 일본식 전통과자에는 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지만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히오리와 나는 쇼핑을 가기 전에 스티커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예쁜 포즈를 취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스티커를 만들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쇼핑을 하면서도 히오리가 옆에서 설명을 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환송회를 하기 위해서 호텔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온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언니들도 홈스테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히오리와 언니들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웠습니다. 우리는 환송회를 하면서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서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라인 아이디도 주고받고 카카오톡과 이메일 주소도 주고받았습니다. 히오리와 헤어져서 정말 슬펐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히오리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았고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히오리는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며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나를 챙겨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히오리와 헤어지고 난 후 짐을 정리했는데 일본에 왔을 때가 어제 같은데 4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니와 나는 다른 언니들 방에 가서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5일째)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왠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초콜릿을 샀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날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의 가방 짐이 훨씬 더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니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긴 비행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엄마께 전화를 했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울산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였는데 이동 내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들과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기름진 것만 먹다가 한국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언니들과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히오리와 라인으로 전화도 해보았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히오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인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울산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서울역에서 울산역까지 KTX를 탔는데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울산에 가면 언니들을 못 볼 것 같아 아쉬웠고, 울산역에 도착해서 언니들과 헤어질 때는 너무도 서운하였습니다. 그래도 5일 동안 언니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없이 떠난 여행이라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일 동안 많은 경험도 하고 히오리를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대송중학교 3학년 안영준

(1일째)드디어 이번 프로그램의 첫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행기나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이었고, 니가타 시에 도착해서 했던 활동은 취침뿐이라 사실상 이동하는 날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 봤으니 의미없는 날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일과는 일정표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해 점심을 대충 먹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김해에서 니가타로 가는 직통 항공편을 구할 수 없었기에 나고야 국제공항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니가타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행기는 나고야행 비행기였습니다. 이게 내 첫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느 때와 같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나고야라지만 국제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식당과 매점도 여러 군데 있었고, 탑승 게이트도 많았습니다. 일정표에는 이곳에서 4시간이나 기다린다고 나와 있어서 많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다양한 시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나고야에서 니가타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밤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는데 날개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여객기였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거의 타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니가타 시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밥을 대충 때워서 그런지 피곤했습니다. 일본측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제공해줬는데 밥이 차가웠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2일째)이번 프로그램 일정 중 가장 기대되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했던 날이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날이었던 이유는 니가타 시청을 방문해 시장님을 만나 뵙고, 현지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국제 청소년 포럼을 실시하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니가타시의 시청에 들러 시장님과 교육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교육청이 없고, 시청에 소속된 교육위원회가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시장님을 직접 뵈니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고장의 시장님은커녕 구청장님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시장님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감 정도인 교육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견학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낮에는 엔키칸에서 다도체험을 했고,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에서 꽃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체험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일본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친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드디어 니츠 다이니 중학교에 가서 환영회를 열고, 국제청소년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회를 위해 자기소개와 춤을 준비해왔는데 막상 무대 위로 올라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자기소개는 대본을 준비해 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기억해뒀던 춤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아니라 몸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는 춤을 잘 춰냈습니다. 안도감과 이제껏 연습해온 보

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영회를 마치고 포럼을 진행했는데 우리 조는 주로 각 나라의 영어 수업과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일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일본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우리처럼 영어를 중요시하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문법을 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문법과 읽기를 가장 많이 공부해서 실제 회화에는 약한 편인데 이 점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개선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에는 야간자율학습이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고등학생들은 공부도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점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토론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대표단 환영회를 니가타시에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환영회가 끝난 후 니츠 다이니 중학교의 직원분이 선물을 들고 직접 숙소로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준 선물에 대한 보답의 뜻으로 건네는 선물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도 숙소까지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신 직원 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3일째)오늘은 홈스테이 가족과 만나는 첫날이라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니가타 시의 수족관인 마린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수족관을 안내해주시는 분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진을 찍느라 설명을 다 못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수족관 자체는 한국의 것보다 작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인 것 같았습니다. 마린피아 내부를 다 둘러보고 나서 돌고래 쇼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고래들의 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마린피아 관람을 마치고 이온(AEON) 몰에 들러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쇼핑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쇼핑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했지만 대충 다 둘러보니 할 게 없어서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루하기도 했고 빨리 호스트 패밀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호스트 패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떨리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스시집에서 먹었는데 태블릿 PC로 초밥을 주문하면 초밥이 자동차 모형을 타고 달려오는 최첨단 스시집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초밥 식당을 생각하면 회전초밥집밖에 떠올릴 수 없었는데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장들도 이 초밥집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장을 본 뒤 호스트 패밀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넓었고 차고도 있었습니다. 2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내가 쓸 방과 거실, 부엌이 있었고 2층에는 아이들 방과 침실 등이 있었습니다. 좁은 일본 주택에서 잘 줄 알았는데 서양식 집에서 자다니, 나로서는 좋았습니다. 밤에는 아이들과 TV를 시청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먹거리 프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을 보다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다다미방 안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으니 금세 잠이 왔습니다.
(4일째)아침밥을 먹고 니가타에서 가장 높다는 빌딩인 반다이 지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최고층에는 토키 멧세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는 니가타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토키 멧세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는 상당히 잘 꾸며

져 있었는데, 매점도 있었고 기념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니가타 시의 전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니가타 시의 중심부에는 일본에서 가장 길다는 시나노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여러 박물관과 축구장, 현 사무소 등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망을 관람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고층 건물이 별로 없었고 비교적 한적하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한적하면서도 물품을 구하기가 쉬운 작은 도시에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토키 멧세에서 내려와서 시나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보트를 탔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까 빌딩에서 봤던 건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나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도 볼 수 있었는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다리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다리까지 특징이 전부 다른 다리들이 함께 모여 있어 특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트에서 내리니 새로운 장소로 와있었는데 그 곳은 바로 후루사토 무라였습니다. 후루사토 무라는 일본 고유의 관광 시설로, 니가타 역사박물관과 전통물품 시장 등이 모여 있는 일종의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먼저 니가타의 특산품과 전통물품을 구경했는데 그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연이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분의 말씀에 따르면 니가타 현의 어떤 도시에서는 매년 6월 연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때마다 큰 연들을 만들어 대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평소 연 날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축제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니가타 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야히코 산을 올라가보기로 했습니다.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정상의 전망이 정말 좋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야히코 신사에 들렀는데, 신사가 숲 속에 있어서 신선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른 나는 전망부터 살펴봤습니다. 산 정상의 전망은 들은 대로 절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넓은 논밭과 작은 집들이, 다른 쪽으로는 바다와 사도 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히코 산은 바다와도 접해있기 때문에 바다 경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전망을 더 감상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서는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송별회를 진행했는데,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루 동안 최고의 여행을 하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이 나를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고, 오늘 밤에 그분들과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울산에 오시면 정성을 다해 대접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5일째)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니가타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거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컨디션이 정말 좋았는데, 여행이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피로는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기 때문에 울산까지 가기 위해 ktx를 타야 했는데, 중간에 서울역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점심을 먹고 기운을 좀 차리긴 했지만, 계속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ktx 안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니가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니가타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다가 니가타에 와서 한 경험들이 정말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본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즐겁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특히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일본 학생에게도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참여한 청소년 사절단 프로그램도 얼핏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슷한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국의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학성중학교 2학년 강성재

10/13일 첫째날

나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고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방문에 지원했다. 나는 주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 설레었고 흥분이 되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던 나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고 꼭 가서 좋은 기억들을 만들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다. 우리는 태화강 둔치에서 모여 리무진 버스를 탔다. 1시간 20분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김해 공항에 도착하였다. 김해 공항에서 우리는 짐을 모두 보냈고 드디어 출국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나고야 공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에 처음 발을 디뎌본 나는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 나고야 공항에서 4시간을 대기하는 중 면세점도 둘러보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춤 연습을 해보았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나는 처음에 부끄러웠지만 일행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연습을 하다 보니 남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일본 학교에서의 장기자랑이니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니가타로 향하는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일본에서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보았던 많은 나라들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을 해보았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드디어 니가타에 도착하였다. 니가타에 도착을 해서 공항을 나오자 우리를 5일 동안 안내해 줄 친절해 보이는 야마다 씨가 계셨다. 친절하게 보였고 우리를 첫 날부터 잘 도와주시고 안내까지 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야마다 씨의 안내로 호텔 선루트 니가타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리고 20분 동안의 이동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을 처음 들어가자 우리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해주는 직원 분들이 계셨다. 처음에는 호텔이 원래 다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같았다. 거기서부터 나의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방 배정을 받고 간단한 저녁식사로 도시락을 받았다. 그 다음 내일 집합 시간과 해야 하는 일들, 방문 일정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듣고 나서 드디어 방을 향하여 갔다. 방은 좁았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아늑하였다. 옷을 갈아입고 나는 형들과 함께 주변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고 돌아왔다. 그렇게 니가타에서의 첫날은 끝이 났다.

10/14 둘째날

오늘은 매우 설레고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빡빡한 일정과 재미있는 일정들이 함께 있는 날이었다. 우선 우리는 아침부터 니가타 시의 시청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우리의 통역을 맡아주실 홍채리 선생님도 거기서 보게 되었다. 선생님은 정말 통역을 잘해 주셨다. 니가타 시청에서는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과는 정말 비교가 되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정도로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니가타시 시장님을 뵙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방문을 책임지고 계셨던 마에다씨도 처음 뵙게 되었다. 시장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최근 울산 태풍 및 지진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로 나는 감동을 받았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였고 감동을 받았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품도 주셨다. 마지막으로 갈 때도 친절하게 배웅해줘서 나는 정말 기뻤다. 우리는 다도 만들기를 체험 하러 갔다. 다도 체험을 하는 집은 원래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지만 다도 만들기 체험이 시작되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거기서 한국에서 차를 마실 때는 몰랐던 차 마시는 예절과 방식 등을 배우게 돼서 나는 좋은 것을 하나 더 배워가는 것 같았다. 다도 체험이 끝나고 우리는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에서 엽서를 만들었다. 엽서를 만들던 중 내가 놀란 것은 엽서가 우리를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울산광역시, 니가타시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말로 적혀있었다. 그래서 나는 엽서를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엽서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엽서 만들기가 끝난 후 옆에 있는 동물 보호 센터에서 동물들을 보고 밥을 먹은 후 드디어 니이츠 다이니 중학교로 향하였다. 도착했을 때 중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무척 떨렸다. 드디어 우리가 가장 설렜고 동시에 가장 긴장된 스케줄이었다. 우선 포럼을 하는 친구들과 잠시 만나서 가방을 내려놓고 드디어 강당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강당에 처음 들어설 때 일본 학생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떨림 속에서 자기소개를 하였고 모두 끝난 뒤 울산광역시 소개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였던 장기 자랑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 난 매우 떨렸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고 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연습한 대로만 춤을 추었고 그렇게 3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던 것 같다. 그렇게 장기 자랑도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 뒤 우리는 국제 청소년 포럼을 시작하였다. 우리 조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포럼을 통해서 일본 친구들의 연락처와 함께 친해질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얘기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나는 좋았다. 어느새 포럼이 끝났고 우리는 선물을 나눠주었다. 4시에 바로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왔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일본 친구들은 우리를 끝까지 배웅했고 인사를 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쉬웠다. 오늘은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고 좋은 추억들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그렇게 나는 재밌는 하루를 좋은 기억으로 남겨둔 채 잠들었다.

10/15 셋째 날

오늘은 기다리던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다. 벌써 셋째 날 즉 이번 여행의 반이나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진다.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침에 수족관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수족관을 견학하면서 한국 수족관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였다. 우선 천장이 훤히 보이는 수족관이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광합성 할 빛을 내리 쬐는 기계를 포함하여 즉 최신 장비들을 모두 포함한 수조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돌고래 쇼도 볼 수 있었다. 돌고래 쇼가 끝난 뒤 우리는 교장선생님께서 사 주신 메론빵을 맛있게 먹었다. 따뜻한 빵 안에 차가운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으니 정말 오묘하게 맛있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 도착하여 홈스테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한 남자아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성재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나는 “하이”라고 대답하였고 드디어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름은 소라였다. 홈스테이 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

셨다. 충전기는 가져왔냐고 물어 보길래 못 가져왔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다이소에 가서 안드로이드 충전기를 사주셨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냐고 묻길래 학교 축구부 소속이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놀라면서 소라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저녁으로 샤브샤브를 먹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우리는 그냥 고기를 건져 먹지만 일본은 날계란을 풀어서 거기에 찍어먹는 것이었다. 느끼할 줄 알았지만 먹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다. 밥을 먹고 난 뒤 소라가 많이 심심해 보였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마트 심부름 다녀오는 겸 축구를 하면서 갔다. 소라는 정말 축구 유망주였다. 같은 축구부 소속으로서 기술을 알려주면 바로 따라하는 것을 보아 정말 머리가 똑똑한 아이였다.

그렇게 마트 심부름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는 씻고 자기로 하였다. 그렇게 니가타에서 가장 흥분되는 밤이 지나갔다.

10/16 넷째 날

소라가 7시에 축구 하러 공원에 가자는 말을 하면서 나를 깨웠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일어나 축구를 하러 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공원에 도착하였다. 공원은 천연잔디였다

축구가 끝난 후 소라의 가족들과 함께 소바를 먹으러 갔다. 일본의 소바는 한국과 다른 식이었다. 일본은 면과 국물을 따로 제공했으며 튀김과 설탕, 무 등이 함께 나왔다. 음식을 먹던 중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신다고 선물을 많이 챙겨주셨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쌀과자를 만들러 갔다.

쌀과자 만들기가 끝난후 우리는 니가타에서 가장 큰 빌딩인 토키 메쎄를 갔다. 거기서 나는 배를 타고 니가타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이 때 나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나도 컸다. 이 코스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즐기기로 하였다. 사진도 귀엽게 찍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 송별회를 하러 갈 시간이 되어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돌아와 송별회 시간까지 잠깐 쉬고 있던 중 혹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냐고 물어왔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매우 좋아하고 자주 본다고 하였더니 송별회 시간에 소라는 한 봉지 가득 선물을 담아놨었다.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나와 소라 그리고 소라의 가족들은 언젠가 꼭 한번 다시 만자고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다.

10/17 마지막 날

꿈만 같았던 5일이 벌써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 소라의 가족, 함께 여행을 왔던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을 하기가 싫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니가타 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으로 직항 하여 도착한 후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드디어 울산에 도착하였다. 울산역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좋았다. 하지만 함께 여행을 가서 정을 쌓았던 나를 포함한 10명의 친구들, 3명의 선생님들과 헤어진다니 나는 정말 아쉬웠다. 우리는 꼭 다시 내년에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신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남겨주었던 2016년 니가타시 방문 교류 여정은 끝이 났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화암중학교 2학년 이지애

(1일차)

'2016년 울산 학생 대표단 니가타 방문'에 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김해공항 행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태화강 둔치에 모였습니다. 처음 니가타에 방문할 청소년을 뽑기 위해 원서를 지원 할 때 까지만 해도 솔직히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혀서 너무 좋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몹시 설렜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떠나는 여행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함께 있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고야 공항에서 언니들과 부족한 일본어였지만 음식도 시켜먹어 보고 공항의 내부 가게들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내일 니가타의 니츠 다이니 중학교에서 보여줄 자기소개 연습도 하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모두 부끄러웠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댄스공연 연습도 했습니다.

니가타에 도착하여 준비해주신 버스를 타고 썬루트 니가타 호텔에 가서 각자의 방을 정했습니다. 저는 동생 수현이와 같이 쓰게 되었는데 착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씻은 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쉬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오게 된 여행에다 내일 일정을 보니 설레서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 힘들었던 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일본에서 느꼈던 감정은 많았습니다.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와 차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공통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들 친절히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보람찬 내일일정을 기대하며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2일차)

아침을 먹고 첫 번째 일정인 니가타 시장님을 만나러 시청으로 갔습니다. 시청 앞에 일본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 분들도 모두 친절하셨고, 저희가 한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인사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교육장님과 두 분 모두 인상도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필기구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도체험을 위해 엔키칸으로 갔습니다. 시청과 가까운 거리라서 걸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도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멋졌습니다. 엔키칸은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모노를 입으신 분이 차 내리는 법부터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모노도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차 내리고 차 마시는 예절은 조금 어렵기도 하였지만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자 두 개를 주시는데 엄청 달아서 다 못 먹을 뻔 했지만 그 뒤 마시는 차가 쓰기 때문에 두 개를 먹으니 딱 좋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고 씁쓸하고 특이했습니다.

체험이 끝난 뒤에는 먹거리와 꽃의 교육 센터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말린 꽃을 붙여 예쁜 엽서도 만들고 아름답고 특이한 많은 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여러 종류의 토끼, 고양이 등등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이언트 토끼 같이 일반 토끼 보다 훨씬 큰 토끼도 있고 털이 복슬복슬 있던 토끼 등등 신기한 토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던 고양이는 길고양이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눈에 띄는 고양이를 데려와 보살펴 주다가 분양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했던 것은 다 큰 고양이들이 있는 방에는 TV, 소파 등 일반 집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길래 물어 보았더니 고양이들이 입양되어 가정집에 갔을 때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뒤에 그 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꼭 보고 싶었던 알파카를 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덥다고 몸의 털을 벗겨 놓았는데 그 마저도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니츠다이니 중학교에 방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가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하니 창문부터 학생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로도 방문해줘서 고맙다는 글도 쓰여 있어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으로 가니 학생들이 박수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세는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교복도 한국과는 디자인과 느낌 등이 달랐습니다. 니츠 다이니 중학교 교감 선생님의 인사말과 단장님 말씀이 끝나고 우리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너무 떨렸지만 잘 끝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다 같이 연습했던 한국의 걸 그룹 춤을 보여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크게 쳐주어 그동안 연습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갈 때 한국에서 많이 쓰는 손가락 하트를 써주어 놀랬고 좋았습니다. 저도 함께 써주니 너무 좋아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표현이 한국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일본학생들이 써주어 신기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포럼도 같은 곳에서 하였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사람들과 교류를 심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일' 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 일본 학생들과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고 또 각 나라 학생들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도 주고받다보니 눈 깜짝 할 새에 끝나버렸습니다. 의외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신기했고 다른 점은 새롭게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저희 토론 모둠에 우연인지 저의 홈스테이 가족 분이 계셨습니다. 첫인상도 너무 좋았고 한국말도 잘하셔서 놀랬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학생들이 마주 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까지 인사를 해 주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반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온 뒤 니가타시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높으신 분들도 있어서 긴장도 되었지만, 모두 친절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음식도 코스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일정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내일이 더욱 기대되고 내일 만나게 될 홈스테이 가족분들도 궁금해졌습니다.

(3일차)

아침을 먹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수족관 마린피아에 갔습니다. 마린피아에서는 신기한 바다 속 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조 안에 모래가 아닌 해초의 시체가 쌓여 만들어진 것을 넣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비하여 광합성 기계도 설치되어 있고 해파리 종류도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가오리도 있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멋진 돌고래 쇼도 보았습니다. 돌고래가 4마리 있었는데 링을 통과도 하고 여러 묘기도 부리면서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돌고래 쇼를 처음 보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귀엽고 즐거웠습니다. 귀여운 펭귄도 보았습니다. 그 곳에서 맛있다는 아이스크림 메론빵을 단장님께서 모두에게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온몰이라는 큰 쇼핑몰에 갔습니다. 먼저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곳에서 초밥도 먹고 여러 음식도 맛있게 먹은 뒤 그 뒤에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한 바퀴를 다 둘러보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식료품 매장에서 맛있어 보이는 과자랑 선물할 과자 등을 샀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스트 가족들이 모두들 친절해보이셔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영어를 잘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DVD 대여소에도 데리고 가 주셨는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아서 놀랬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한국 김과 한복 입은 인형을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제 홈스테이 학생 분의 언니가 오셨습니다. 미국 유학생이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정말 이쁘고 영어도 잘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홈스테이 학생인 키코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에게는 언니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맛있는 과자들이나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젤리를 사주셨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킨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직접 닭을 튀겨서 저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족분들과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도 나누고 저보고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하셔서 감사드린다고 하고 먼저 씻었습니다. 키코 언니가 씻고 저희는 여러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키코 언니가 한국말을 정말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잘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4일차)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셔서 먹은 뒤에 키코 언니와 함께 키코 동생의 축구하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옆에서는 산책도 할 수 있고 강아지들의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일본 남학생들이 축구 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남학생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키코 언니와 저는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였습니다. 그 곳에 한 학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일본사람인줄 알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근처 바다를 볼 수 있는 파란 전망대에도 갔습니다. 조금 낡긴 하였지만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는 근처에서 열린 작은 축제를 보러 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도 하고 일본 북을 두드리며 하는 퍼포먼스와 귀여운 춤도 추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도 팔고 게임도 하고 프리마켓도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한국에서도 쓴 차를 종종 찾을 것 같이 차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뒤 배가 고팠던 저는 야끼소바를 사먹고 언니와 게임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놀이라 이름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는 많이 접해보았고 또 한국의 전통 놀이와 비슷한 것들도 많아서 잘하였습니다. 얇은 종이로 구슬 올려 보는 것도 해보았고 줄을 던져서 걸기도 해보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방향제 만들기도 하였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강의 다리를 건너 니가타의 시내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의 백화점에 가서 레인보우 타워도 보았습니다. 너무 이뻤지만 사진에 이쁘게 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키코랑도 스티커 사진을 두 번이나 찍었습니다. 일본의 스티커 사진은 이쁘게 나와 너무 좋습니다. 학용품도 사고 일본의 유행도 보고 한국의 공통점도 보고 하니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호텔 주변에 애니메이션 굿즈(상품)를 파는 곳에도 가 보았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엄청 넓고 좋았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너무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홈스테이 가족과 송별회를 하였습니다. 송별회에서 함께 밥도 먹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연했던 댄스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일본 홈스테이 가족 중에 작년에 울산을 방문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때 울산에서 공연했던 춤도 보여주어서 서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내일은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고 홈스테이 가족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기약과, SNS

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5일차-마지막날)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조금 이른 아침밥을 간단히 먹은 뒤에 짐을 다 챙겨서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나지 않았었는데 오늘 떠난다고 하니 서운한 감정이 더욱 컸습니다. 약 2시간30분 동안의 비행을 끝나고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점심을 먹자하고 저희는 오랜만에 김치찌개,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함으로써 저희의 4박5일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일본 니가타 방문은 아마 제 평생 잊지 못 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도 홈스테이 신청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뜻 깊은 경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옥현중학교 3학년 곽지민

(1일째) 오늘은 하루종일 버스,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서 니가타로 이동을 했다. 오랜 이동과 약간의 감기 기운으로 몸은 지쳤지만 앞으로 일본에서의 4일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에는 일행들과 어색했지만 비행기 안과 호텔에서 말을 하면서 점점 친해졌다.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일본의 니츠다이니 중학교에 가서 출 춤을 연습했는데 신기하게도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갔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10번 이상 연습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준 관계자 두 분 덕분에 일본의 첫인상은 좋았다. 호텔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가 본 일본의 편의점은 디저트의 종류가 정말 많았고 직원들이 제품을 찍을 때마다 가격을 말해줘서 신기했다.

(2일째)오늘은 니가타시에서 처음으로 시내를 둘러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 하루만 돌아보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고 밝으며 도시가 매우 깨끗하고 공기가 좋았다.

-시장 교육장 예방

니가타시청에 가서 시장, 교육장 등 관계 인사들을 만나 자기소개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긴장되었다. 너무 긴장되어 자기소개를 할 때 말실수를 하였지만 웃으면서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일본의 시청은 한국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마음껏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말씀에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일정으로 갔다.

-엔티칸에서 다도 체험

일본의 다도 문화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청 옆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만화 속에서만 보는 일본 건물이어서 신기했고 처음 해보는 체험이기에 모든 것이 색달랐다. 차는 매우 썼고 과자도 너무 달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하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밀담을 나누기 위해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니츠 다이니 중학교 방문 (국제 청소년 포럼)

기대하기도 했지만 긴장이 많이 되는 일정이었다. 학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줘서 긴장이 조금은 풀렸었다. 강당에서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장기자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 다음 일본 중 고등학생과 한국과 일본 학생의 학교생활 차이에 대해 토론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고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사람들의 성격이 정말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3일째)-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 견학

초등학교 이후로 수족관은 처음이어서 매우 기대되었다.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내음이 나고 공기가 시원해 수족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떴다. 들어가자마자 본 수조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산호가 햇빛과 파도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광합성을 해주는 빛을 쐬어주고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어주며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의 해양생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오면서 출구에서 팔던 메론빵도 맛있었다.

-이온몰 쇼핑

일본에서의 쇼핑을 기대하고 있었던 나는 이온몰에서의 쇼핑이 매우 기대되었다. 이온몰은 우리

나라의 아울렛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위화감은 전혀 없었다. 파는 옷과 소품들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서 신기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스티커 사진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점이었다. 지나칠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고 나왔다. 처음에는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져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걱정했지만 이온몰을 다 둘러보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시간이었다.

(4일째)-홈스테이

이번 일본 니가타 방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홈스테이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다. 호텔에 가정의 어머니만 오셔서 가정에 갈 때까지 어색하긴 했지만 계속 말을 걸어 주시고 가족 소개를 해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와 아이 넷이 달려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 김과 과자를 작은 선물로 들고 갔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일본 가정식은 정갈하고 입맛에 맞았고 한국 가정과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가 따뜻했다.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의 하룻밤이었지만 모모에의 가족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잔 것 같다. 아침은 빵을 먹자고 해 막내인 메이와 손을 잡고 빵집에 갔다. 일본의 아침은 평화롭고 그 날 니가타현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 날이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초등학교에서 선거에 참여하셨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임에도 운동장에서 야구,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신기했다. 아침을 먹고 일본 신사에 들렸는데 마침 오늘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일이어서 사람이 북적였다. 오미쿠지를 뽑았는데 대길이 나와 가족들이 자신이 일인 듯이 기뻐해주셔서 고마웠다. 니가타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 근처에 있는 바다에 들려 아이들과 물수제비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운동과 게임을 할 수 있는 라운드 원에 들려 아이들과 게임과 운동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 번역기를 써야 하고 불편함이 많았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가족들이 울산에 온다면 관광을 시켜주고 싶다.

(5일째)오늘은 일본에서 울산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여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에 다시 가고 학원을 간다는 생각에 아쉬웠지만 돌아 와야 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니가타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 오늘 놓치면 다음날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친구들과 밤을 새기로 했다. 마지막 날이기에 우리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니가타 역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기념품을 샀다. 다행히 아침에 다들 제 시간에 모여서 안전하게 한국에 올 수 있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우신고등학교 2학년 김상윤

오늘은 니가타로의 여정의 첫 번째 날이다. 종일 버스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애들과도 서로 친하지 않아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까 기대도 되었다.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내일 출 춤의 연습을 했는데,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신기했다. 내일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대망의 날, 니츠 다이니 중학교 방문 전 오전에 니가타 시청을 들렀다. 시청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 격한 예의에 감사와 부담을 동시에 느꼈다. 잠깐의 교류를 나누고 엔키칸으로 이동했다. 일본의 멋진 신사를 구경하고 다도체험도 했는데, 거기서 말차의 거품을 내는 재능을 발견했다. 또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를 견학하며 멋들어진 꽃 풍경도 찍었다고, 동물센터를 방문하여 귀여운 동물들을 보고 알파카를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이후 점심을 먹으니 어느새 결전의 시간이 찾아왔다. 자기소개, 발표, 춤까지... 붕 뜸 정신으로 어찌저찌 많은 학생들 앞에서의 공적 행사를 마쳤다. 중학교 측의 화답은 관현악기 합주 공연이었는데, 중학교에 그런 브래스밴드가 있다는 것이 신선했고 연주 또한 기립박수를 치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했다. 이후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도 시간이 아쉬울 정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생각과 달리 영어로 말을 하려니 중간에 턱턱 막혔는데, 전달이 잘 되었길 바란다. 고된 하루였다.

오전에는 니가타의 수족관인 마린피아에 다녀왔다. 부산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재밌는 물고기가 많았고, 돌고래 쇼도 재밌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일본의 백화점 이온에서 쇼핑을 했는데, 여자애들이야 신났겠지만 우리는 얼마 못가 지쳐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2층에서 게임 센터를 발견해 남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이후에는 대망의 홈스테이 시간. 나는 타케다 가족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인 타케다 슌타와 아버지인 타케다 히토시씨, 어머니인 타케다 유코씨와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다. 히토시 씨는 키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처음엔 놀랐는데, 다행히도 친절하신 분이셨다. 슌타네 집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집에 작은 체육관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 곳에서 농구 슈팅과 스쿼시 등을 하며 놀았는데, 슌타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집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며 일본에서도 특이한 구조라고 한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난 후 온천에 갔다. 한국의 대중목욕탕과 비슷하면서도 노천온천이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이후 집에 돌아와서 슌타에게 켄타마라는 전통 놀이도구를 선물받아 좋았다.

슌타네 집에서 일어나 아침에 연 박물관에 갔다. 니가타의 전통인 거대 연싸움 축제를 주제로 여러 가지 연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이었는데, 한국어 나레이션으로 된 다큐 동영상도 보고, 세계의 여러 연을 관람하고 직접 날려보기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슌타의 아버지와 페북 친구가 되고 우노나 오셀로 등의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 켄타마 고수들에 대한 유투브 동영상도 봤는데, 정말 어떤 손을 타고나야 저런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했다. 어느덧 송별회 시간이 되어 호텔에 모였지만 타케다 가족은 일이 있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척 심심한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켄타마 실력은 조금 는 것 같지만.

모든 일정이 지나갔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 그 많은 일들이 참 꿈만 같이 지나갔다. 아이들과도 제법 친해진 거 같고, 이 경험이 나중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지는 앞으로 남은 나날들

만이 알려줄 것이다. 홈스테이 때 따뜻하게 맞아준 타케다 가족과, 동행하고 만난 모두에게 감사한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신승찬

전날 기숙사에서 나와, 평소의 평일이면 생각도 못하는 가족과의 아침식사를 마치고 잘 다녀오라는 가족들의 인사랑 친구가 있는 학교를 등지고 약속장소로 모였습니다. 저는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에 평소 교복의 무게를 보다 무겁게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선배이기에 얼굴로 삐져나오려는 해외에 나온 것에 대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잡아 누르기만 할 뿐 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나고야 공항에서 나를 맞이한 건 내가 알고 있던 곳과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처음 보는 광경의 신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부모님을 통해 어렵사리 개통한 데이터로밍을 통해, 신기함은 집중하지 않으면 일행과 떨어진다는 자신을 향한 위기의식으로 희석시키고 니이가타로 향했습니다. 도착 했을 때는 이미 하루가 다 지나 어두컴컴할 즈음, 담당자분과 통역사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hotel sun route niigata'에서 다음날은 기약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아침은 상상한 것 그 이상 이었습니다. 니가타 시장님과 교육장님을 뵙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창문 밖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이 자전거를 타면서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아이를 등원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아침은 활발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아침 햇살에 비치는 시나노강을 보며 "태화강과 비슷한게 정말 깨끗한 강이구나."라 생각하며 울산과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친절히 맞아주시는 시장님과 교육장님과의 면담을 갖고 다도 체험을 마친 후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의 견학을 마치고 '니츠 다이니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학교모습과 학생들 모두가 강당에서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학생들은 성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구나."라 생각하며 감탄했습니다. 이후 울산소개를 통해 내가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한다는 사실에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마음을 흔들었던 '니츠다이니 중학교'의 오케스트라연주를 듣고 우리가 준비한 K-pop댄스시간이 마치고 포럼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일본학생과 대화를 하는 건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등등의 걱정을 하며 포럼에 임했습니다. 百武 美愉 (모모타케 미유)를 포함한 세 명의 일본 중학생과 학교생활에 대한 서로간의 비교도 해보고 유명 음악문화를 통해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함으로써 서로 친근해 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1시간이 지나고 같이 토론한 친구들과 작은 선물과 이메일 교환을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긴장해서 실수 하지 않았는지 너무 혼자만 말한 게 아닌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조금 더 내 세상 밖의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포럼활동 교류의 여운을 가슴에 묻고 발표활동이 끝나 좀 더 홀가분해진 기분으로 니이가타를 즐길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밝아진 시내의 아침거리를 지나며 수족관 마린피아를 향해 갔습니다. 마린피아에서는 한국에는 아마 없을 듯 한 스케일의 돌고래쇼와 수조들 좀처럼 보기 힘든 바다동물들을 보면서 데이트로 다시 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단장 선생님과의 '메론 아이스빵'을 먹으며 점심을 먹으러가던 중 넓게 펼쳐진 밭을 보며 이런 풍경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데 일본에게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걸까 싶어 우리나라보다 큰 일본의 영토의 크기에 대해 실감이 났습니다. 이후 백화점에서 친구들 선물도 구입한 후 호텔로 돌아와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어색한 기운을 날려버리듯이 아비네 아버지께서 썰렁한 개그를 해주시고 다른 홈스테이보다 우리 쪽이 더 빨리 친해진게 아닐까 생각 해봤습니다. 이러한 아버님의 배려에 부응하기 위해 또 더욱 많이 알아가기 위해 아비에게 여러 질문들도 해보았고 동생인 타이신 에게도 여러가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할 할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통해 친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 지식을 쌓아 놓는 것이 어느 때에든 기회를 잡는 자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욕조 문화나 손님을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님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모습을 배워야 겠다 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아침 5시 반 한국이면 해도 뜨지 않을 시각, 햇살을 받으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아비네 어머니께 아침인사하면서 집 주위를 산책했습니다. 이 시간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층빌딩에 아무도 없을 거리였겠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낮은 가옥들에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여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면서 저 또한 나 자신에게 여유를 가지는 습관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서 아비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 첫 일본식 아침과 낫토를 먹고 아비네 가족과 니가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보기도 하고 시나노강의 역사에 대해서도 둘러보고 온천지역에 가서 족욕체험도 해보는 등 일본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아쉬운 기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아비네 가족에게 말해 보았는데 아비는 “그럼 sns로 언제든지 연락 하면 되겠네.”라며 말해주면서 제 기분을 위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송별회의 시간, 다시 만나는 사절단 단원들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돌아간다는 생각에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심 노력 했습니다. 다른 홈스테이 가족들과 만나 소개도 하고 송별회 중에 댄스베틀을 받기도 하는 등 무거울 줄만 알았던 송별회가 모두의 노력으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재회를 다짐하며 아비네와 해어질 때에는 눈물이 날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고 온 물건이 없는데도 무언가 많은 것을 두고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내일을 향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어제의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항공편에 늦지 않게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창문 밖을 보니 우리의 귀국을 슬퍼하는 듯이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담당자님과 통역사님과 헤어지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던 이번 니가타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는 유학이라는 꿈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자, 내가 익숙히 아는 세계를 벗어났던 도전이자,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는 인생경험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는 문영신 인솔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도와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기획을 해주신 울산과 니가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마치고 나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니 떠나는 비행기를 향해 손짓하는 기술자 분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손짓하는 분들은 떠나는 모든 비행기에 손짓하는 것일 텐데 나에게는 다시 돌아오라는 재회의 손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평소와 같은 생활을 다시 시작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의 삶은 이번 경험을 통해 전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미래라는 것에 저는 확신 할 수 있습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김소연

기대했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태화강 둔치에 모여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마음이 더욱더 들떠서 이미 마음은 일본에 가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니가타로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우선 나고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고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너무 들떴지만 다음날 있을 니츠다이니 중학교방문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계속 자기소개만 주구장창 반복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제가 원하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한참 부족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연습을 하다 보니 맛있는 기내식이 나왔고 곧이어 나고야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실제 일본 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사람도 많았고 온통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제일 먼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긴장도 아주 잠시 점심으로 우동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랑은 너무나도 다른 일본음식이지라 적응이 잘되지 않아 많이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전통우동의 맛이라 정말 색다르고 맛있었습니다. 점심 먹고난 후 구경하고 난 뒤 다같이 모여 내일 있을 니츠다이니 중학교 방문에서의 장기자랑을 연습하였습니다. 딱 한 번 모이고 평소 각자 집에서 연습하였는데 시간이 꽤 흐른 후 다시 맞춰보니 조금은 어색해서 고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연습을 열심히 해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니가타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니가타에 도착하자 니가타에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환영'이라는 글자까지 직접 프린터 해 오신 것을 보고 매우 친절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니가타에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마중 나와 주신 분들이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 안내해 주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의 호텔은 우리나라의 호텔과는 조금 다르게 일본의 특징처럼 좁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래도 매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 편안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만난 일본 분들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에서 편안하게 잔 후 일어나서 조식을 먹은 후 니가타 시장님을 만나러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 시장님의 환영 인사를 듣고 짧은 환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였던 태풍 피해에 대해 걱정하셔서 강주변이나 저지대의 경우 피해는 컸지만 저희는 모두 괜찮고 학교도 괜찮다고 단장님이 말씀드려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니가타에서 매우 인기있는 시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짧았지만 시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희는 주변에 있는 다도체험을 하러 이동하였습니다. 다도체험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처음 해 본거라 엄청 신기했습니다. 차를 만들기 전 간식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간식이 아주 달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차를 만들어서 마신 후에는 간식이 왜 이렇게 단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차들은 매우 쓰서 간식을 달게 먹어 쓴맛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위해 달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다도체험이후 먹거리와 꽃의 교육센터에 방문하여 아주 이쁜 꽃들도 구경하고 말린꽃으로 장식하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물원도 갔는데 토끼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은 후 가장 긴장되는 니츠다이니 중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니츠다이니 중학교에서 우선 니츠다이니 중학교의 소개를 듣고 울산대표단의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가 준비한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용한 분위기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후 국제청소년 포럼에

참석하였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여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이야기에서 나도 일본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일본친구들과의 만남도 잠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가장 기대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아침에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를 견학했습니다.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보았는데 정말 신기한 물고기도 많았고 엄청나게 커서 무섭게 생긴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수족관 마린피아에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처음 본 물고기도 이런 물고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족관 구경을 마친 후 돌고래 쇼를 보았습니다. 돌고래 4마리가 나와 돌고래 쇼를 선보였는데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그런지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돌고래들이 호흡을 맞추는 것을 보고 돌고래도 매우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에서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쇼핑을 하러갔습니다. 쇼핑을 하기 전 점심을 먹었는데 매번 뷔페식으로 준비해주셔서 하루하루 매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후 드디어 쇼핑을 하였는데 엄청 큰 쇼핑몰인지라 처음에는 헷갈려서 계속 해맸으나 간식코너를 찾아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매우 많았으며 시간을 많이 주셔서 여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쇼핑을 마친 후 가장 기대하고 있던 홈스테이 가족과의 대면식이있어 서둘러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에 가서 조금 기다리자 저의 홈스테이 가족이 오셨습니다. 매우 이쁜 홈스테이 친구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아버님께서 오셔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선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주셨고 많은 이야기를 한 후 나의 홈스테이 가족인 메이와 함께 내일의 일정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하루를 보내는 가장 기대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을 먹고 11시 30분에 외출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아이들이 3살, 5살, 7살이 되면 신사에 가서 기모노를 입고 절을 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본적이 있는데 실제 그곳을 방문하니 실제로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쁜 기모노를 입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엄청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신이라는 부적도 사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를 구경하면서 산책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잠깐 동안 산책 후 저의 홈스테이 가족이 예약해둔 자전거 자동차 같은 것을 타고 니가타의 전통 길을 구경하였는데 신기해서 그런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해주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니가타의 여러 관광지를 소개해주셨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셔서 니가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다고 말했던 시내구경과 쇼핑을 하러 갔는데 나의 홈스테이 친구인 메이가 커플 옷을 맞추자며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곤약젤리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여 살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가 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송별회 시간이 다가와서 가족 다 같이 송별회 장소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서 아쉬운 송별회를 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만날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가장 재밌었고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일본에서의 4박5일도 끝이 나고 벌써 울산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빠른 시간인지라 빨리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서둘러 준비해 허둥지둥 약속시간에 맞춰나갔습니다. 7시2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니가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일본에서 떠나기 싫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정말 즐거웠던 4박5일 동안의 추억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숙면을 취했고 조금 뒤 기내식이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음식이여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속 후 곧바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 철도에 탑승하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었는데 4박 5일 동안 매운 걸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반가워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야말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울산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나는 경진대회 시험을 치러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울산 대표단과 인사를 마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긴장감만 맴돌았고 어색했지만 헤어질 때는 정반대로 아쉬움만 가득하였습니다. 4박5일 동안 너무 뜻 깊은 시간이었고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또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4박5일은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뜻 깊었습니다.

2016 울산 학생대표단 일본 니가타시 방문 소감문

호계고등학교 2학년 권나연

고대하면서도 마냥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날이 왔다. 평소라면 학교 책상에 앉아 영어 듣기를 하거나 자습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겠지만, 좀 더 여유롭게 집을 나서고 익숙지 않은 평일 아침의 태화강변의 출근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일본을 가는 건가 싶었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되는 비몽사몽인 상태로 조금은 낯선 시각의 풍경 속에서 아침의 찬 공기와 마주했던 그때의 그 마음. 언제 생각해도 기분 좋은 기억이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김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몸과 마음을 실으며, 우리 엄마, 그리고 서로의 어머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버스에 자리를 잡고, 우린 서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였는데, 여자애들끼리는 나고야 공항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 면세점 구경도 하고 휴대폰도 보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일본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첫 일본이자 첫 해외여행이었고, 오늘이 주말도 아닌 평일, 게다가 방학도 아닌 학기 중이라는 생각에 붕 뜨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창가자리에 앉아 한 시간 넘게 한참을 바깥만 바라보았던 것 같다. 아래로 보이는 일본의 육지는 확실히 낯설었다. 나고야 공항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니가타에 가기 위해선 시간이 남았었다. 우리는 공항 한 구석에 모여 내일 일본의 중학교에서 선보여야 할 춤을 마지막으로 맞춰 보았다. 열린 공간이라 조금은 민망했다. 출발 시간은 여섯 시 반 즈음으로 초저녁이었지만, 확실히 해가 빨리 지다보니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밖이 아예 깜깜해졌다. 그 비행기에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 밤이라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촘촘히 빛나는 일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피곤했지만 그렇게 또 한참을 바라보았다. 반짝거리는 불빛이 앞으로의 일정을 앞둔 나의 설렘을 대변하는 듯 했다.

니가타에서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야마다 씨와 통역사 언니가 계셨다. 버스에 올라타 호텔로 이동하는데, 캄캄한 니가타의 교외 지역을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화려하지 않고, 다른 듯 다르지 않은 풍경이 좋았다. 점점 시내로 들어서는 듯하더니 곧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다. 방을 배정받고 저녁 도시락을 여자아이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먹고 나서는 편의점으로 갔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첫 날 밤이 흘러갔다.

호텔 로비에서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일찍 알람을 맞춰 두었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도 한참 뒤에 일어나 버렸다. 정말 급하게 준비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렇게 둘째 날의 아침은 허둥지둥 시작하였다. 어제는 하루 종일 공항에 있었고 밤에 잠깐 본 게 다였다. 그래서 본격적인 니가타 구경은 그 때부터였다.

첫 일정은 니가타 시청 방문이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출근과 등굣길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어젯밤에 본 것과는 또 사뭇 다른 낮의 니가타 여기저기를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시청이었다. 일본의 시청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그냥 일반 여행이었다면 내가 일본 관공서에 방문할 일이 있었겠나 싶었다. 어느 회의실에 모여 우리 울산 학생 사절단의 인솔자 선생님들과 니가타 시 교육위원회 관계자 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곧 시장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에는 마냥 딱딱하고 지루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다. 시장님은 물론이고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우리를 정말 반갑게 대해주셨다. 우리는 각자 간단한 일본어 자기소개를 했다. 서툰 발음이었을 텐데도 눈을 맞추고 웃으며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시장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더니

과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유쾌하고 좋은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예상과는 다르게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오히려 시간이 짧아 아쉽기까지 했다. 내가 한국에서부터 걱정하고 긴장했었던 공식적인 일정 중 하나였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엔키칸에서의 다도체험이었다. 일본에 와서 고궁을 못 가는 것이 마냥 아쉬웠는데 궁궐은 아니지만 전통 가옥에 와시츠를 본다는 생각에 약간 들떴다. 녹차 만들기 체험을 했었는데 거품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내 녹차는 거품이 반밖에 생기지 않았다. 같이 준 과자는 그저 설탕을 뭉쳐놓은 듯 무척이나 달았다. 무지하게 쓴 녹차를 위한 것이었다. 녹차는 내 생각보다도 더 썼지만, 일본 녹차에 반했던 순간이었다.

다음 장소는 먹거리와 꽃의 교육 센터였다. 먼저 생화로 카드를 꾸민 후 마침 꽃 컨테스트 중이라는 식물원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에 한눈을 팔아 일행을 놓쳐 버렸다. 당연히 2층에 있겠거니 하고 올라갔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그 어디에도 없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다행히도 직원 분의 도움을 받아 국제 미아가 되어버리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직원 분이 나를 일행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시는 도중 일본어로 몇 마디를 하셨는데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웃자 일본어를 못한다는 걸 알아차리신 듯 했다. 그때 “にほんごが下手です。”(일본어를 못합니다.) 이 한 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는 말도 안 나와서 아쉬웠다. 그 후 동물원도 둘러보고 나서 드디어 국제 포럼을 위해 니츠 다이니 중학교로 향했다. 사실 시장님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긴장은 그다지 하지 않았었는데, 버스에서 내려 학교 앞에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일정인 만큼 엄청나게 떨렸던 것 같다. 어느 교실에 들어가니 일본 학생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국제 포럼을 먼저 하는 건가 의아했다. 그건 아니었는지 우리는 대기만 하고 있다가 강당으로 이동했다. 강당에는 같은 옷 같은 신발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니 굉장히 조용했는데, 한국 학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매우 놀랐다. 우리가 준비해 온 자기소개를 할 차례였다. 오는 버스에서까지도 계속 중얼거리며 외웠던 거라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무대에 서니 긴장하고 당황한 탓에 버벅대고 심지어 까먹기까지 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던 건데…. 나 스스로가 너무 아쉬웠다. 좀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걸.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준비했던 춤은 실수도 많았지만 나름 괜찮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강당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와 국제 포럼을 진행했다. 우리 조에는 일본어-한국어 통역사 없이 오로지 영어만 사용해야 해서 굉장히 난감했다. 회화 실력은 부족하기도 했고, 영어를 사용하려면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 아이들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편이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학교생활에 대해 서툰 영어로나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던 참에 포럼의 시간이 끝나버렸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끝이야? 벌써?’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준비해 간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같은 조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포럼이 이렇게 즐겁게 진행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니가타에서 했던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즐겁지 않은 건 없었지만 말이다. 괜히 혼자 너무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 일본의 학교를 좀 더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호텔로 돌아와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다가 아침에 만났던 니가타 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환영회를 시작했다. 한국 아이들 10명 모두가 내내 기름진 음식만을 먹은 탓에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못했지만, 역시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둘째 날의 밤도 무사히 흘러갔다.

셋째 날 아침은 집합시간이 꽤 여유롭기도 했고, 일정 자체도 전날보다 여유로웠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첫 일정은 수족관 마린피아 견학이었다. 사실 수족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 옆에서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직원분과 그 설명을 다 통역해주시는 통역사 언니의 수고를 생각하며 열심히 관람했다. 마침 시간이 잘 맞아서 돌고래 쇼도 볼 수 있었는데, 쇼 도중 돌고래와 악수할 기회가 두 명의 아이에게 주어졌다. 그 두 명에 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었고, 그 상황을 바라보자니 너무나도 귀여웠다. 돌고래의 재주에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마린피아를 나오는 길에 메론 아이스 빵을 교장선생님께서 사주셨다. 들어서는 길에서부터 점찍어뒀었는데 기대만큼 맛있었다. 그 후 우리는 쇼핑 시간을 가졌다. 쇼핑 장소는 AEON이라는 아주 큰 쇼핑몰이었는데, 울산에 있는 어떤 쇼핑몰보다 그 규모가 컸다. 그냥 그런 대형마트를 갈 줄로만 알았는데 상상이상이었다. 우선은 그 곳의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때 일본에 온 후 처음으로 스시를 먹었다. 계속 느끼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만 먹다가 스시를 접하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 아이들끼리는 일찍이 식사를 마치고 먼저 쇼핑에 나섰다. 일본 옷가게도 구경하고 기대했던 드럭 스토어도 들리고 5명이서 함께 스티커 사진도 찍었다. 확실히 일본 스티커 사진은 남달랐다.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다. 1층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가져갈 선물들을 사기 시작했다. 출국날 일정이 빠듯하여 면세점을 들릴 시간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급해져서 이것저것 마구 담았던 것 같다. 엔키칸에서 접했던 일본 녹차가 너무 좋아서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기에 과자는 뒤로하고 차를 모아 둔 코너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종류도 제각각에 가격도 제각각, 아는 브랜드도 도통 없으니 뭐를 사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 옆에 계셨던 일본인 노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들이 고르는 녹차를 따라서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몇 개를 꺼내 살펴보더니 그만 가 버렸다. 결국 나는 용기를 가지고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Can you recommend me おちゃ?” 영어는 못 알아들으신 듯 했지만 다행히 おちゃ는 알아 들으셨나보다. 거기에다 “베스트, 베스트!” 라고 덧붙이니 잠깐의 고민 후 이것저것을 가리키셨다. 처음엔 티백에 든 것을 가리키시기에 “노 티백!”이라고 말하니 다시 다른 것들을 가리키셨다. 일본어로 무언가를 말하셨지만 그건 이해하지 못했고, 대충 몸짓을 보고 녹차 하나를 골랐다. 아, 뭔가 뿌듯했다. 전날 꽃의 교육센터에서 아쉬웠던 게 해소되는 듯 했다. 정말 서투른 일본어에 어딘가 이상한 영어에 온갖 몸짓을 다 섞어 겨우 소통한 것이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 후 자신감이 생겼는지 내가 찾는 초콜릿이 없자, 이번에도 다시 직원 분께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역시나 서툰 일본어에 영어에 손짓발짓 다 섞으니 대화는 가능했다. 그 분이 정말 열심히 초콜릿을 찾아주려 하셨지만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 괜찮다고 말하며 나왔다. 그 초콜릿을 못 찾은 건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도 아쉽다.

쇼핑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다. 좀 있으면 홈스테이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등의 고민과 어느새 친해진 친구들 및 선생님들과 떨어져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두려움. 동시에 이번에는 시간이 넉넉하니 일본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겠다는 들뜬 감정. 약속 시간은 금세 다가왔고, 몇몇 가족분들이 호텔 로비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멍청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교복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통역사 언니와 나누는 말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방금 들은 거 내 이름인 거 같은데?’ 하며 일어났는데 나의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가 맞았다. 아직 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던 때라 바로 내 호스트 패밀리를 만날 줄은 몰랐기에 약간은 당황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내 손을 잡고 맞아주었다.

그리고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발음도 그렇고 어떻게 이 긴 문장을 다 외웠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감탄했다. 아주 수준급의 실력이었다. 그 전날 편지를 미리 받아서 이름은 알고 있었다. '아이라'라는 친구였다. 내 상상 속 일본 여고생의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친구였다. 귀엽고 발랄하며, 동시에 소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예쁜 친구였다. 서로 통성명을 한 뒤, 아이라는 자신이 한국 남자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본의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사실 아이라가 k-pop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본의 무언가는 딱히 없었기에, 어떤 대답을 해야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약간 망설인 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대답했다. 좋아하는 건 맞다.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닐 뿐. 다행히 내 대답에 기뻐하는 듯 했고, 그 외엔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에 나는 더 당황했다. 애니메이션 자체를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브리라서 좋아하는 건데…. 다행히 통역사 언니가 내 말을 잘 순화해서 전해주신 것 같았다. 모든 홈스테이 가족들이 모인 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호스트 패밀리의 집으로 이동했다. 아이라는 정말 k-pop을 좋아하는 듯 했고, 한국어는 생각보다도 더 잘했다. 방탄소년단 말고도 다른 k-pop 가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생활 및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내 초반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이나 많은 대화를 나눴고, 소통에 큰 장벽은 없었다. 심지어 아이라는 어머니와 나 사이의 통역사 역할도 해 주었다. 아이라의 집은 니가타 역 근처인 호텔에서 좀 먼 듯 했다. 꽤 긴 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했다. 一戸だて(단독주택)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준비해 둔 일본어 인사 및 자기소개와 함께 홍삼 선물을 전해드렸다. 사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었는데, 좀 더 어른이신 할머니 및 할아버지께 드려야겠다고 딱 생각이 들어 곧바로 드렸다. 아이라의 방에 짐을 풀고 얼마 안 있어 삼촌께서도 오셔서 다시 일본어 인사 및 자기소개를 했다. 사실 정말 기초적인 말인데도 놀라며 감탄하셔서 감사했다. 아이라는 작년에 일본 학생교류단의 신분으로 울산에 왔었다고 했다. 그 때 가서 찍었던 사진을 모두 인화해서 파일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에서 받은 유인물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일본에서의 모든 것을 잘 보관하고 기록해 놔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속의 아이라와 나에게 울산에서의 날들을 이야기해주는 아이라는 정말 신나보였다. 그것을 보는 나도 즐거웠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 삼촌, 어머니, 아이라,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나는 사실 집에서 저녁을 먹는 줄 알고 방에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우리가 간 스시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지 무려 4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약간의 후회와 함께 대기석에 앉아 우리 차례를 기다리며 아이라와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이라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로 뛰어나서 나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신 단점이라면, 아이라가 웬만한 한국어는 알아들으니, 아는 일본어도 한국어로 뱉게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스시집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터치스크린과 회전대를 통해 각 테이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은 절로 감탄이 나왔다. 맛은 더 대박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 먹어 왔던 초밥은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이 낫토 스시를 나에게 권하며 도전해보라고 했다. 알갱이 하나를 조심스레 입에 넣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았다. 낫토 먹는 걸 포기하고 어머니께서 대신 드셨다. 굉장히 잘 드시길래 신기했다. 어찌됐든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까는 산책을 가고 없었던, 아이라가 키운다는 고양이 '점프'가 있었다. 같이 놀고 싶었는데 금방 가버렸다. 그 대신 아이라의 방에서 함께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언어는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웃음 코드는 대충 알 것 같았다. 그걸 보면서 아이라에게 "やば

い。(심하다)” 라는 말도 배웠다. 한참 웃고 떠들다 10시쯤에 씻으러 갔다. 일본의 화장실은 한국의 것과 많이 달랐는데,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고, 세면대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씻고 나온 뒤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셋째날 밤도 무사히 흘러갔다.

아침이 밝았고, 가족들 중 내가 가장 늦게 일어났다. 그 전날에 아이라가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음에 7시라고 대답했던 게 민망했다. 시간이 9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나라면 아침저녁 둘 다 머리를 감지만, 아이라에게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왠지 민폐인 것 같아 그냥 머리는 빗질만 하는 것으로 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거실인 것으로 보이는 방에 다들 모였다. 메뉴는 볶음밥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었다. 밥임에 감사하며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젓가락으로만 밥과 국을 먹는 건 영 어색했고, 게다가 애초에 국을 거의 먹지 않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기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열심히 먹었다. 하지만 배가 불러 푸딩은 먹지 못했다. 맛이 궁금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조금 아쉬운 것 같다. 11시에 우리는 그 날의 일정을 시작했다. 어머니와 삼촌, 아이라가 함께 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 이후로 뵙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직접 마중을 나오셨다. 다른 세 명과는 오늘 하루를 함께 하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렇게 금방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아쉬움을 품고 우리는 바다로 향했다. 어제 마린피아에 가는 길에 잠깐 바다를 보았었는데, 이렇게 올 줄이야! 아이라가 설명해주었던 일정에 바다는 없었는데 이렇게 가게 되니 신이 났다. 여기 저기 사진을 찍고 아이라와 함께 그림자 사진도 찍고 잠깐 그렇게 머물렀다가 신사로 향했다. 신사를 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정말 신이 났다. 일본 전통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날에 갔던 엔키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신사였다. 어린 아이들이 모두 다 기모노를 입은 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사를 찾아왔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다. 아이라의 말에 의하면,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무슨 기간이라 3·5·7세의 아이들은 모두 기모노를 입는다고 했다.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한 뒤, 아이라 어머니께서 오미쿠지를 사주셨다. 종류가 다양했는데 아이라와 나는 벚꽃이 그려진 사쿠라 오미쿠지를 골랐다. 종이를 펼치고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이라가 먼저 놀라 탄성을 질렀다. 왜냐하면 大吉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라는 中吉이었다. 첫 오미쿠지에 대길이 나와 정말 기뻤다. 아이라에게 물었더니 같은 대길이라도 그 내용은 다르다고 하던데 내 오미쿠지의 내용도 물어볼 걸 그랬다.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른다. 어찌되었건 오미쿠지의 내용대로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그리고 나에게 오마모리도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종류가 다양했다. 좀 일본스럽고 전통적인 느낌의 오마모리를 고를까 고민했는데 키티가 있는 귀여운 오마모리를 추천해주길래 그것을 골랐다. 대길의 사쿠라 오미쿠지와 함께 잘 보관해야겠다. 그렇게 신사를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언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본에서 웬 한국어인가 싶어서 뒤를 돌았는데, 지민이와 지민이네 호스트 패밀리들이 함께 있었다. 이틀 반이었지만 내내 함께 있었는데 하룻밤 안 봤다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전날 호텔에서는 지민이네 호스트 패밀리의 어머님만 오셔서 아이들은 그 때 처음 본 거였다. 그 집은 아이들이 무려 4명이었다. 지민이와 동갑인 아이 한 명, 그리고 다 어린 동생들이었다. 보기만 해도 북적거렸다. 잠깐 지민이와 어젯밤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헤어졌다. 나오는 길에 코코야키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니가타에서만 판다고 했다. 맛은 센베와 비슷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시청으로 향했다. 어머니께서 오래된 건물을 좋아하냐고 물으셨는데 그게 구시청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전날 저녁에는 니가타에도 고궁이 있나?’라고 생각했고, 당일 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오래된 건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설마 폐가체험이라도 하는 걸까?’하는 생각도 들었

다. 그렇게 미궁 속에 있었던 목적지는 구시청 건물이었다. 지금은 니가타 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박물관 맞은편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 내부에는 2층에 현대식 구조와 와시츠가 공존했다. 바깥의 경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내가 니가타에서 보았던 풍경 중 가장 최고였다. 옆으로는 시나노 강이 흘렀다. 일본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라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게 마치 바다를 보는 것만큼 물이 넓고 크게 흘렀다. 사진을 여럿 찍었지만 뒤늦게 확인해보니 다 내 손에 가려버리거나 밝기 조절을 잘못해서 망친 게 다수였다. 아쉬웠다.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니가타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곳을 가장 먼저 꼽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 나는 니가타의 구시청과 신시청 모두를 가본 셈이 되었다. 그리고는 내가 전날에 가고 싶다고 했던 돈키호테로 향했다. 전날 EON에서 돈을 많이 써 버렸기 때문에 딱히 무언가를 살 생각은 없었고 그저 구경이 하고 싶었다. 돈키호테에는 정말 많은 것을 팔았다. 정말 많고 다양했다. 전날 EON에서 못 구했던 곤약젤리를 발견해서 그걸 사고,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 일본 컵라면도 골랐다. 정말 귀여운 마이멜로디와 키티 팩이 있었는데, 혹시 모를 면세점의 가능성을 위해 다시 내려놨다. 당연히 내가 계산할 거라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어머니께서 다 사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다. 시간이 점심때라 간단하게 타코야끼를 먹기로 했다. 너무 뜨거워서 이리저리 찢고 식히고 한 후에 겨우 한 입씩 먹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돈키호테를 나와서 우리는 니가타 시내 거리로 향했다. 아이라가 '반다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거리를 부르는 이름인 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삼촌께서는 우리를 데려다주고 난 뒤 이제 가신다고 했다. 역시나 너무 아쉬웠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 버렸다. 그때서야 드는 생각이었지만, 아이라의 가족과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렇게 할아버지에 이어 또다시 작별인사를 나눴다. 아이라와는 전날 아이라 집으로 가는 중이었던 저녁부터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WEGO에 들러 커플 초커를 맞췄다. 아침에 만났던 지민이와 지민이의 짝이 커플 후드티를 맞춰 입고 있던 게 생각났다. 초커가 유행은 하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해 보는 것에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라가 이 근처에 자기가 자주 가는 k-pop 샵이 있다며 나를 데려가주었다. 일본에 있는 k-pop샵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 곳의 아저씨와 친하다는 아이라에 정말로 k-pop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다. 이튿날 밤 휴대폰이 고장이 나지만 않았더라도 친구한테 소개해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곳에 도착했다. 나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정말 많이 궁금했다. 들어서자마자 아이라는 주인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심지어 아저씨께서 아이라에게 CD를 따로 챙겨주시기까지 했다. 보통 친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동시에 호스트 패밀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아이라가 정말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웠다. 아이라의 행복한 쇼핑이 끝난 뒤, 호텔에서의 모이기로 한 시각까지 애매한 시간이 남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니가타 역으로 향했다. 계속해서 나에게 볼만 한 것이 딱히 없다고 아이라는 말했지만, 나는 다 좋았다. 그냥 이국적인 곳을 걷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은 아팠지만 계속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내가 좋아할 만한 드럭스토어도 아이라가 데려가 준 뒤, 우리는 마침내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둘 다 가는 내내 "はやい"(너무빨라)를 외치면서 말이다.

호텔에는 나와 아이라가 가장 늦게 도착했다. 드럭스토어에서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다. 출발 전 여러 준비를 위해 교육청에서 모였던 때, 목요일 아침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못 했던 이야기를 한참동안 나눴다. 아이라가 아닌 다른 일본인 친구들은 대면식에서 아주 잠깐 본 게 다였는데, 우리는

금방 말을 텄다. 특히 키코라는 아이는 둘째 날 국제포럼에서 본 기억이 나서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그 아이도 나를 기억하는지 반갑게 인사했다. 키코는 아이라보다도 한국말을 잘 했다. 지애는 나보다도 편했겠구나 싶었다.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떠들다 우리는 환송회를 위해 2층 식당으로 올라갔다.

환송회는 환영회와는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였다. 우선은 우리들의 입맛이 돌아온 게 컸다. 니츠다이니 중학교에서 추었던 트와이스의 'Cheer up'을 환송회 때 홈스테이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반응은 정말 좋았고, 우리도 두 번째로 하는 거다 보니 실수도 줄었으며 나름 능숙하게 했던 것 같다. 우리의 춤에 대한 답례로 일본 아이들도 춤을 췄는데, 작년 울산에 왔을 때 준비했던 거고 1년 만에 다시 추는 거라고 했다. 우리는 예쁜 걸그룹 춤을 췄다면 그 아이들은 코믹한 춤이었는데 훨씬 반응이 좋았다. 아이라가 춤을 잘 춘다는 것은 홈스테이 날 저녁에 이미 알게 되었지만, 정말로 춤을 잘 췄다. 센터에서 춤을 추는데 아이라만 보일 정도로 돋보였다. 그리고 아까 cheer up을 출 때 아이라가 함께 추고 싶어 하는 티를 냈었는데, 우리 춤에서 센터에 섰던 남자아이에게 댄스 대결을 신청했다. 그 애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스스럼없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췄다. 그걸 보면서 우리끼리 한참을 웃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함께 참석한 홈스테이 가족 중 7살짜리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 분위기를 이어 받아 춤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나왔다. 쑥스러워 보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모두가 기대하며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을 한 5번은 다시 춘 것 같았다. 그래도 귀여웠다. 환송회는 2시간으로 끝이었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금방 가 버렸다. 니가타에 오고 둘째 날까지만 해도 시간이 늦게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도 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렸다. 다른 아이들 생각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리는 아쉽다는 소리만 계속 반복했다. 환송회가 끝나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헤어질 시간이 왔다. 단 하루였지만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그날 저녁에 본 다른 홈스테이 가족들과도 헤어지기가 참 아쉬웠다. 호텔 로비에 내려와 아이라와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채로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우리를 구경하고 있던 다른 외국인들이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해 하다가 금방 우리는 다 같이 어울려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각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중 한 여자 분이 3년 전에 한국에 갔었다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물꼬를 텄다. 이런 게 진짜 교류구나라고 느꼈다. 그들과 헤어지고, 이제 정말로, 정말 헤어질 시간이 왔다. 호텔 앞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우리는 밖으로 나섰다. 아쉬움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작별 인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아이라의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 지신 걸 발견했다. 나도 내가 그럴 거라곤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보니 나도 눈물이 나왔다. 내가 눈물을 흘리자, 그걸 보고 있던 지민이와 지애도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물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호텔로 다시 돌아와 내일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방으로 올라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끼리 마지막으로 니가타 거리를 걷기로 했다. 첫날 저녁에 갔었던 サ―クル K에도 다시 들리고 아이라와 함께 갔던 니가타 역도 걸으며 니가타의 밤공기를 만끽했다. 금방 다시 호텔로 돌아 왔고, 한 방에 모여 밤을 새기로 했다. 소연이는 많이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고, 나도 밤을 샐 생각은 없었기에 새벽에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자려는 순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 걸려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4일 내내 보았던 별 볼 것 없는 바깥 야경이었지만, 한참을 쳐다 보다 결국 잠자리에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이 오고야 말았다. 어젯밤 늦게 잠을 청하면서 알람을 5시 반 정도에 맞춰 놓았

다. 왜냐하면 출국 비행기 시간이 9시 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람이 아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아침 먹으러 가냐고 묻는 승찬이었다. 애초에 아침을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저 잠을 자려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확인해 보니 무려 6시 반이었다. 준비를 모두 끝내고 짐을 다 챙겨 호텔 로비에 모이기로 한 시각이 7시 10분이었는데 한 시간도 남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 했다. 간신히 그 시간에 맞춰 내려갔다. 버스로 타고 니가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최대한 니가타의 거리와 풍경을 눈에 많이 담아 두려고 노력했다. 출근 및 등교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보며,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니가타 공항에 도착한 후 야마다 씨와 통역사 언니와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그리울 니가타를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니가타에서의 4박 5일은 정말 의미 있는 날들이었다. 여행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시간과 돈만 있다면. 물론 그 두 가지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니가타에 가서 보고 듣고 받고 느낀 것들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해도 다시 경험하기 어려울 것들일 것이다. 그런 환영과 대우를 언제 또 받겠는가. 그리고 언제 또 그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학생 교류단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될 거라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10명 안에 들었고, 꿈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 달 뒤 고3을 앞둔 이 시점에서, 수많은 평가와 과제들을 다 제쳐놓고 향한 일본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 훨씬 이상이었다. 일상에 지친 내 몸을 위한 휴식이었고, 새로운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이었고, 내 마음의 성장이었으며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을 향한 새로운 엔진이 되어주었다. 문득 니가타에서의 짧았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었던 니가타, 이국적인 듯 익숙했던 니가타! 니가타의 그런 모습이 더 좋았고 정감이 갔다. 동생들처럼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라서 더 적절했던 것 같기도 하다.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다.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흘러 가 버렸지만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